

## 장치와 저항 : 아감벤과 들뢰즈-푸코의 장치론 비교

윤 영 광\*

〈차 례〉	
I. 서론 II. 아감벤의 장치론	III. 들뢰즈-푸코의 장치론 IV. 결론을 대신하여: 장치론에서 자유와 윤리의 자리

핵심주제어: 장치, 통치, 주체, 푸코, 아감벤, 들뢰즈

### I. 서론

푸코(Michel Foucault)가 1970년대 중반 이후 사용하기 시작한 ‘장치(dispositif)’ 개념은 권력의 미시적 작동 방식과 그를 통해 형성되는 주체의 존재론적 조건을 해명하는 이론적 도구 중 하나다. 푸코의 규정에 따르면 장치란 담론, 제도, 건축 형태, 법, 행정적 조치, 과학적 언표, 철학적·도덕적 명제 등 이질적 요소들의 집합이자 그 요소들 사이에 세워지는 네트워크를 뜻하며, 주체 생산을 둘러싼 권력의 전략적 기능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주로 등장한다.<sup>1)</sup>

장치가 권력과 주체 생산의 문제라면, 반대 방향에서 그것은 또한 저항의 문제기도 하다. 장치가 주체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면, 그렇게 생산된 주체가 어떻게

---

2026년 01월 04일 접수, 2026년 02월 10일 수정, 2026년 02월 23일 게재확정

\* 강원대학교 교수(Email: luxaeterna@kangwon.ac.kr)

1) Michel Foucault, “The Confession of the Flesh”, in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1972-1977*, edited by Colin Gordon, New York: Pantheon Books, 1980, pp. 194-196.

장치에 저항할 수 있는가? 장치에 의해 구성된 주체가 그 장치를 변형하거나 그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가능한가? 주체성 생산 혹은 주체화를 정치의 중심 문제로 제기하는 현대 정치철학의 흐름에서 이 문제는 저항과 해방의 가능성을 사유하려는 모든 시도가 직면해야 하는 핵심적인 물음으로 제기된다.

이 문제에 대해 아감벤(Giorgio Agamben)과 들뢰즈(Gilles Deleuze)는 상이한 방향에서 응답한다. 아감벤은 현대 자본주의에서 장치들이 더 이상 주체화가 아닌 '탈주체화(désubjectivation)'를 통해 작동한다고 진단하면서, 비인칭적 역량과의 관계맺음을 통한 저항전략을 모색한다. 반면 들뢰즈는 푸코의 장치 개념을 '주체화의 선(線)'을 따라 독해하면서, 윤리적 실천으로서의 주체의 자기변형을 저항의 핵심으로 파악한다. 이 두 해석은 탈주체화와 주체화라는 상반된 방향을 가리키지만, 동시에 푸코의 장치론이 개방한 이론적·정치적 가능성의 공간을 보여준다.

본 논문의 목적은 아감벤과 들뢰즈의 장치론을 비교·검토함으로써, 장치에 대한 저항전략의 방향을 타진하는 것이다. 논지를 미리 밝히자면, 제목이 함축하듯 푸코 자신의 입장, 특히 후기 푸코의 사유와 연속적으로 독해될 수 있는 것은 들뢰즈의 장치론임이 주장될 것이다.

2절은 아감벤의 장치론을 다룬다. 아감벤이 푸코의 장치 개념과 현대 자본주의에서 장치들의 탈주체화 경향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살펴본 후, 그가 제안하는 세속화(profanazione) 전략과 '통치될 수 없는 것', 게니우스(genius) 개념을 통해 그의 저항전략이 함축하는 바를 논의한다. 3절은 들뢰즈의 장치론과 후기 푸코의 주체화론을 살핀다. 들뢰즈가 장치를 구성하는 네 가지 선—가시성의 선, 언표행위의 선, 힘의 선, 주체화의 선—을 어떻게 개념화하는지 들여다보고, 특히 주체화의 선이 갖는 저항적 함의를 검토한다. 그리고 그 연속선상에서 푸코 자신의 후기 사유를 참조하여, 윤리로서의 정치라는 테제가 주체의 자기변형을 통한 저항전략으로 제시되는 맥락을 추적한다. 결론에서는 장치에 대한 저항이라는 관점에서 두 장치론이 보이는 핵심적 차이를 명료화하고, 장치의 내재적 변형 혹은 윤리로서의 정치로 집약될 수 있는 들뢰즈-푸코 장치론의 정치철학적 의의와 그것이 제기하는 추가적 과제를 짚어본다.

## II. 아감벤의 장치론

아감벤은 2006년 출간된 「장치란 무엇인가?」(Che cos'è un dispositivo?)에서 푸코의 1977년 인터뷰를 인용함으로써 장치 개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다른 주요 용어들과 마찬가지로 푸코는 대체로 명료한 정식화 없이 이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 인터뷰에서는 예외적으로 '정의'에 가까운 방식으로 장치의 의미를 설명한다.

이 장치라는 용어로 제가 포착하고자 한 것은 담론, 제도, 건축형식, 규제적 결정, 법, 행정상의 조치, 과학적 언표, 철학적·도덕적·박애적 명제 등으로 이루어진 확연히 이질적인 집합입니다. [...] 이것이 장치의 요소들입니다. 장치 자체는 이런 요소들 사이에서 세워지는 네트워크입니다. [...] 나는 장치를, 말하자면 일정한 역사적 순간에 긴급한 요구에 응답하는 일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일종의 형성체로 이해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장치는 두드러지게 전략적인 기능을 가집니다. [...] 그것은 힘의 관계들에 대한 일정한 조작, 이 힘의 관계들에 대한 합리적이고 잘 조직된 개입을 수반합니다. 이는 그 관계들을 모종의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그것들을 저지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으며, 그것들을 안정시켜 활용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치는 언제나 권력관계 속에 새겨집니다.<sup>2)</sup>

장치의 구성 요소와 전략적 기능 등에 대한 이처럼 상세한 설명은 결국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은 후기 푸코의 두 가지 키워드로 집약되는바 그것은 통치와 주체다. 아감벤의 말대로 푸코는 통치성 혹은 '인간의 통치' 문제에 몰두했던 1970년대 중반부터 장치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sup>3)</sup>

아감벤에 따르면, 푸코가 장치라는 개념을 통치성 연구와 함께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장치의 어원인 라틴어 '디스포지티오(dispositio)'는 2-3세기 교부들이 희랍어 '오이코노미아(oikonomia)'를 번역할 때 사용한 용어였다. 당시 신학적 맥락에서 오이코노미아는 삼위일체 교리를 둘러싼 논쟁—신의 단일성과 삼위의 복수

2) Foucault, "The Confession of the Flesh", pp. 194-196.

3) 조르조 아감벤, 「장치란 무엇인가?」, 『장치란 무엇인가?/장치학을 위한 서론』, 양창렬 쓰고 옮김, 난장, 2010, 15쪽.

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다. 교부들은 신의 존재 차원에서는 단일성을 유지하면서, 신의 활동 혹은 프락시스 차원에서는 복수성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오이코노미아는 후자, 즉 신의 존재와 분리된 순수한 신의 프락시스, 세계와 인간의 역사를 구원하는 통치를 지칭하는 개념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결론적으로 “장치라는 용어는 존재 안에 어떤 토대도 두지 않는 순수 통치 활동이 그것으로, 그것에 의해 실현되는 것을 명명한다.”<sup>4)</sup> 그리고 통치가 이처럼 어떠한 존재에도 기반하지 않는 순수한 프락시스 혹은 활동이라면, 그것은 자신의 프락시스를 매개할 ‘수단’(“그것으로, 그것에 의해”)을 필요로 한다. 이 수단이 바로 장치이며, 또한 장치를 통해 생산되는 주체다. “장치들은 항상 주체화 과정을 내포해야 한다. 즉 장치들은 그 주체를 생산해야 한다.”<sup>5)</sup> 요컨대 통치라는 활동은 그에 상응하는 주체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여기서 주체의 생산에 활용되는 이질적 요소들의 집합이 장치인 것이다.

아감벤은 장치의 작동 구조를 통치-장치-주체와 생명체-장치-주체라는 두 가지 삼항 도식으로 정리한다. 첫 번째 도식은 방금 살펴본 것처럼 통치 활동이 장치를 통해 주체를 생산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두 번째 도식은 이 과정의 다른 면, 즉 장치가 무(無)로부터 주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를 포획하여 주체로 변형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때 핵심적인 것이 장치와 폭력의 구분이다.

모든 장치는 주체화 과정을 내포하며, 이 과정이 없다면 장치는 통치 장치로 기능할 수 없고 그저 폭력행사가 되어버린다. [...] 즉, 장치란 무엇보다 주체화를 생산하는 하나의 기계이다. 그리고 그런 기계이기에 비로소 통치 기계이기도 하다.<sup>6)</sup>

폭력은 생명체를 파괴하거나 억압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통치가 성립하지 않는다. 통치는 생명체를 특정한 방식으로 주체화함으로써, 즉 특정한 정체성, 역할, 행위양식을 부여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해진다. 장치는 바로 이 주체화가 이루어지는 통

4) 아감벤, 「장치란 무엇인가?」, 28쪽.

5) 아감벤, 「장치란 무엇인가?」, 28쪽.

6) 아감벤, 「장치란 무엇인가?」, 41쪽.

로이자 장(場)이다. 담론, 제도, 건축, 법 등 장치를 구성하는 이질적 요소들은 모두 생명체를 특정한 주체로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이처럼 주체는 장치의 산물인 동시에 통치의 토대, 즉 통치가 작동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장치 없이 주체 없고, 주체 없이는 통치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순환적 관계가 아감벤이 파악하는 장치의 핵심 구조이며, 이 구조 자체가 저항의 문제를 제기한다. 장치에 의해 구성된 것인 한에서 존재론적으로 장치-통치와 분리불가능해 보이는 주체가 어떻게 장치에 저항할 수 있는가?

아감벤은 이 물음에 답하기 전에 현대 자본주의에서 장치의 작동 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진단한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장치들은 “더 이상 주체의 생산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탈주체화라고 부를 수 있는 과정을 통해서 작동한다”는 것이다.<sup>7)</sup> 이 진단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체화를 통한 통치와 탈주체화를 통한 통치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규율 장치들—학교, 군대, 공장, 병원 등—은 개인에게 특정한 정체성과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작동했다. 학생, 군인, 노동자, 환자라는 주체 위치가 생산되고, 개인들은 이 위치와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통치 가능한 존재가 되었다. 반면 현대 자본주의의 장치들—휴대전화, 소셜미디어, 신용카드, CCTV—은 이러한 동일시를 요구하지 않는다. 휴대전화 사용자는 ‘휴대전화 사용자’라는 정체성을 형성하지 않으며, 단지 끊임없이 데이터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익명의 점(點)으로 기능한다. 아감벤은 이를 더욱 철저한 포획의 형태로 본다. 전통적 장치에서 주체는 잠재적으로 저항의 거점이 될 수 있었다. 노동자는 노동자로서, 시민은 시민으로서 자본과 국가에 저항할 수 있었다. 그러나 탈주체화된 개인에게는 이러한 거점 자체가 사라진다. 정체성이 없는 곳에서 정체성에 기반한 저항은 불가능하다.

이 진단은 저항전략과 관련하여 딜레마를 제기한다. 만약 현대 장치들이 탈주체화를 통해 작동한다면, 저항은 주체성 내지 정체성의 회복을 목표로 해야 하는가? 그런데 이는 우리 자신을 다시 주체화를 중심으로 하는 장치의 ‘옛’ 작동 방식에 내맡기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탈주체화 경향을 가속해서 주체로부터 더욱 벗어나야 하는가? 그러나 주체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정치란 무엇인가?

---

7) 아감벤, 「장치란 무엇인가?」, 43쪽.

아감벤은 탈주체화의 양면성을 부각함으로써 이 딜레마를 돌파하려 한다. 탈주체화에는 자본주의적 장치들에 의한 주체성의 해체라는 어두운 면만 있는 것이 아니며, 비인칭적 역량 즉 순수 잠재성과 관계맺음에 기초한 저항전략으로서의 탈주체화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 비인격적/비인칭적 역량과 관계를 맺을 것인가? 어떻게 주체는 그에게 속하지 않고 그를 넘어서는 역량과 관계 맺을 수 있는가? 이것은 이른바 시학적인 문제이다. 로마인들은 생명을 발생시킬 수 있게 해주는 충만한 비인격적/비인칭적 원리를 게니우스라고 불렀다. 그것도 하나의 가능한 모델이다. 주체는 의식을 가진 주체도 비인격적/비인칭적 역량도 아니며 그 둘 사이에 매달려 있는 것일 테다. 탈주체화에는 어둡고 캄캄한 측면만 있지 않다. 거기에는 모든 주체성의 파괴만 있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더 충만하고 시학적인 이 다른 축도 있다. 그 축에서 주체는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의 탈주체화의 주체(le sujet de sa propre désubjectivation)이다.<sup>8)</sup>

게니우스는 아감벤이 『세속화 예찬』(*Profanazioni*, 2005)에서 상세히 논의하는 개념이다. 로마인들에게 게니우스는 인간의 탄생과 함께 주어지는 신적 원리로서, 인간의 삶 전체를 관장하지만 인간에게 속하지 않는 힘이였다. 장치론의 맥락에서 다시 정식화하면, 장치에 의해 주체로 포섭되기 이전의 생명, 그러나 포섭 이후에도 주체에 온전히 갇히지 않으며 언제나 주체를 넘어서는 생명이 게니우스인 것이다.<sup>9)</sup> 저항전략으로서 탈주체화란 ‘우리 안에 있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것’, 즉 주체를 넘어서는 비개체적/비인격적 역량이자 원리로서의 게니우스와 관계함을 뜻한다. 이러한 관계맺음이 저항이 되는 이유는, 게니우스가 장치에 의해 어떤 특정한 형태로도 고정되지 않는 역량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아감벤이 제안하는 ‘세속화’ 전략의 의미 역시 이 맥락에서 분명해진다. 세속화란 “장치들에 의해 포획·분리된 것을 해방시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돌리는 것”이

---

8) Giorgio Agamben, “Une biopolitique mineure: Entretien avec Giorgio Agamben”, in *VACARME*, no. 10, hiver 2000, interviewed by Stany Grelet and Mathieu Potte-Bonneville, Paris: Association Vacarme, 2000, p. 10[아감벤, 「장치란 무엇인가?」, 161-2쪽에서 재인용].

9) 조르조 아감벤, 『세속화 예찬: 정치미학을 위한 10개의 노트』, 김상운 옮김, 난장, 2010, 9-25쪽.

다.<sup>10)</sup> ‘분리’와 ‘되돌림’의 함축이 중요하다. 아감벤에 따르면 장치는 근본적으로 분리의 기계다. 장치는 생명체의 특정 측면을 포획하여 일상적 사용으로부터 분리하고 신성한(sacer) 영역으로 격리한다. 세속화는 이렇게 분리된 것을 공통의 사용으로 되돌리는 역(逆)작업이다. 세속화에 의해 되돌려져야 하는 것은 순수 잠재성으로서의 게니우스, 더 정확히는 그것과 우리의 관계다.

「장치란 무엇인가?」의 말미에 수수께끼처럼 모든 정치의 시작이자 소실점으로 한번 언급되고 마는 ‘통치될 수 없는 것(l'Ingovernabile)’이 함의하는 바에 대한 단서 역시 여기서 발견된다. 결국 통치될 수 없는 것이란 ‘통치-장치-주체’ 3항의 작동에도 불구하고 늘 주체를 넘어서고 주체에 속하지 않는 게니우스, 즉 비인칭적/비개체적 역량이다. 세속화 문제는 “통치될 수 없는 것에 빛을 비출 때에만 올바르게 제기될 수 있다”<sup>11)</sup>는 아감벤의 말은, 그가 생각하는 장치에 대한 저항의 본질이 이 통치 불가능한 잠재성의 차원과의 관계 회복에 있음을 시사한다.

「장치란 무엇인가?」의 역자 양창렬은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여 아감벤 저항전략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조망한다.

아감벤은 탈주체화를 기존의 모든 주체성의 파괴라는 한 축과 비인격적/비인칭적 역량과의 관계 맺음이라는 한 축 사이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장치에 의한 (탈)주체화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재주체화로 포획되지 않고, 어떻게 탈주체화의 주체로 머물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다. 아감벤은 [...] 이것을 푸코의 ‘자기배려’를 통해 설명한다. 푸코에게 자기배려는 자기를 배려하는 것인 동시에 자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음을 지적하면서 말이다. 즉, 주체화 과정으로서의 자기실천이 아니라 자기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에서만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자기실천이 열쇠이다. 이 실천은 앞서 말했듯이 재주체화/재정체화되지 않고 탈주체화의 문턱에 매달려 있는 한에서만 가능하다.<sup>12)</sup>

이 정리는 아감벤의 입장을 정확히 포착하지만, 이것이 그대로 푸코 자신의 관점과

10) 아감벤, 「장치란 무엇인가?」, 38쪽.

11) 아감벤, 「장치란 무엇인가?」, 48쪽.

12) 양창렬, 「장치학을 위한 서론」, 『장치란 무엇인가?/장치학을 위한 서론』, 양창렬 쓰고 옮김, 난장, 2010, 162-163쪽.

이어지는지, 또 정치적 전략으로서 얼마나 유효한지는 분명치 않다.

‘자기로부터 벗어나기’는 아감벤 뿐 아니라 여러 현대 정치철학자들의 문제계 중 하나다. 가령 랑시에르(Jacques Rancière)에게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다는 것은 정체성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이 탈정체화 과정이 곧 주체화다.<sup>13)</sup> 네그리(Antonio Negri)와 하트(Michael Hardt) 역시 자기로부터 벗어나기를 고정된 정체성에서 벗어나는 과정으로 보며 이것이 주체성 생산의 중요한 계기를 이룬다.<sup>14)</sup> 아감벤이 참조하는 푸코의 주체론 역시 본질적으로 이와 통하는 맥락에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때 푸코가 말하는 자기실천이 “주체화 과정으로서의 자기실천이 아니라 자기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에서만” 혹은 “탈주체화의 문턱에 매달려 있는 한에서만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푸코에게 ‘자기 벗어나기’는 ‘자기 만들기’의 한 계기이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말해, 푸코에게 해체는 구성의 계기다. 자기실천은 탈주체화의 문턱에 매달림으로써가 아니라 탈주체화를 하나의 국면으로 포함하는 (주체 자신에 의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내재적인 주체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탈주체화(정확히는 주체의 자기변형, 곧 윤리적 실천)를 이처럼 주체화의 내재적 요소로 볼 때에만 “자기 자신의 탈주체화의 주체”라는 정식화의 모호성이 해소될 수 있다.

비인격적/비인칭적 역량과의 관계 맺음이라는 문제 역시 내재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비인격적/비인칭적 역량은 광대한 잠재성의 바다지만, (개체 안에서 개체를 이루는 것으로 작용하지 않는 한) 개체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암흑, 죽음, 무(無)이기도 하다. 탈주체화가 저 비인격적/비인칭적 역량의 바다로 데려다줄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모종의 주체화 과정이 없다면 주체는 저 바다에서 익사하고 말 것이다.<sup>15)16)</sup>

13) 탈정체화로서의 주체화에 대한 랑시에르의 논의에 대해서는 자크 랑시에르,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양창렬 옮김, 길, 2013과 『불화: 정치와 철학』, 진태원 옮김, 길, 2015 참조. 이에 대한 국내 연구는 윤영광, 「탈정체화의 정치: 랑시에르 정치철학에서 주체(화) 문제」, 『문화과학』 77, 2014 참조.

14)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공통제』, 정남영·윤영광 옮김, 사월의책, 2014, 6부와 윤영광, 「네그리와 하트의 정치이론에서 자율의 의미와 조건」, 『마르크스주의연구』 12(3), 2015 참조.

15) 아감벤 본인 역시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의식하고 있다. “게니우스와의 마주침은 두렵다. 인격적인 것과 비인격적인 것, 자아와 게니우스 사이의 긴장을 유지하는 삶은 시적이라지만, 게니우스가 모든 면에서 우리를 초과하고 넘어설 때 생겨나는 느낌은 공황상태이다. 우리 자신이 견딜 수 있다고 믿는 것보다 무한히 거대한 그 무엇인가가 우리를 엄습했을 때의 공황상태.”(아감벤, 『세속화 예찬』, 17) 그러나 ‘공황상태’라는 표현이 함축하듯 아감벤에게 이 문제는 심리적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정치론

탈주체화를 통해 비인격적/비인칭적 역량과 관계한다는 아감벤의 구도는 저 역량과 주체의 개념적·논리적 외재성을 전제한다. 그러나 (스피노자의 어휘를 빌려 말하자면) 양태는 신 외부에 있지 않고 그 역도 마찬가지다. 주체는 자신을 벗어나서야 비로소 접촉할 수 있는 비인격적/비인칭적 역량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동시에 자신이 그 안에 있기도 한 역량을 통해 자신을 만들어간다. 내재적 주체화 혹은 윤리적 실천이란 이런 의미의 ‘주체-역량’의 자기 전개로 정식화된다. 이 윤리적 실천을 통한 장치의 내재적 변형 가능성에 대한 탐구를 들뢰즈와 푸코의 논의에서 확인할 수 있다.

### III. 들뢰즈-푸코의 장치론

아감벤의 저항전략이 주체 형식으로부터의 이탈에 초점을 맞춘다면, 들뢰즈와 푸코는 주체 내부로부터 변형, 즉 주체의 내재적 자기구성을 저항의 핵심으로 사유한다. 이 접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들뢰즈가 푸코의 장치 개념을 독해하는 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감벤과 마찬가지로 들뢰즈 역시 장치를 푸코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개념으로 간주한다. 들뢰즈는 1988년 발표한 「장치란 무엇인가?」(Qu'est-ce qu'un dispositif?)에서 장치를 구성하는 네 가지 ‘선(線)’을 구분한다. 이에 따르면 흔히 푸코 철학의 세 가지 주요 주제로 거론되는 지식, 권력, 주체는 모두 장치를 구성하는 선으로 이해될

---

재론적 관점의 검토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16) 아감벤이 말하는 비인격적/비인칭적 역량은 들뢰즈의 『푸코』(Foucault, 1986)의 핵심 개념인 ‘바깥(le dehors)’을 상기시키는 면이 있다. 들뢰즈가 말하는 바깥 역시 주체를 구성하지만 고유하게 주체의 것은 아닌 무언가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깥은 ‘자기와의 관계’나 ‘주체화’의 맥락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감벤이 말하는 비인격적/비인칭적 역량과 다르다. 들뢰즈의 푸코 독해에서 “바깥과의 관계는 [...] 결국에는 자기와의 관계가 주체화의 새로운 양식들을 불러내고 생산하도록 만든다.”(질 들뢰즈, 『푸코』, 허경 옮김, 그린비, 2019, 201-202쪽) 잠재성이라는 더 큰 철학사적 무게를 갖는 개념과의 연관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할 저 두 개념의 관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다른 기회를 기약한다. 들뢰즈의 푸코 해석에서 바깥 개념이 갖는 의미와 역할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는 윤영광, 「포스트휴먼 칸트의 단초: 들뢰즈-푸코의 인간 없는 칸트주의」, 『비평과이론』 62, 한국비평이론학회, 2024 참조.

수 있다. 들뢰즈는 장치 개념이 동반하는 이 같은 선들의 구분에 기반해 푸코 철학 전체의 발전 과정을 재구성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선은 가시성의 선과 언표행위의 선이며, 이 두 선이 지식의 차원을 구성한다. “장치는 우선 보게 하는 기계와 말하게 하는 기계”다.<sup>17)</sup> 각각의 장치는 고유한 빛의 체제와 언표의 체제를 갖는다. 병원이라는 장치는 특정한 방식으로 환자를 ‘보이게’ 하고, 병에 대해 ‘말하게’ 한다. 『광기의 역사』(*Folie et Dérailson: Histoire de la folie à l'âge classique*, 1961), 『임상의학의 탄생』(*Naissance de la clinique: une archéologie du regard médical*, 1963), 『말과 사물』(*Les Mots et les Choses: Une archéologie des sciences humaines*, 1966)로 이어지는 푸코의 초기 작업은 주로 이 지식의 차원을 다룬다.

세 번째는 힘의 선이다. 이 선은 지식의 차원과 구분되는 권력의 차원을 구성한다. 힘의 선은 “한 점에서 또 다른 한 점으로 나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생산되며, 또 이렇게 생산된 힘의 선이 장치의 모든 곳을 거쳐 지나간다.”<sup>18)</sup> 힘의 선은 가시성이나 언표로 환원되지 않으면서 그것들을 가로지르고 조정한다. 『감시와 처벌』(*Surveiller et punir: Naissance de la prison*, 1975)이 바로 이 힘의 선을 분석한 대표적 작업이다.

장치를 구성하는 마지막 선이자 장치에 대한 저항 혹은 장치의 변형이라는 문제에서 관건이 되는 것이 주체화의 선이다. 들뢰즈는 이 새로운 차원이 이미 너무 많은 오해를 일으킨 바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밝히는 일이 쉽지 않다고 말한다. 들뢰즈에 따르면, 푸코 사유에서 주체화의 선의 발견은 특별한 위기와 더불어 이루어진다. 이 위기는 “장치에게 결정적인 윤곽을 부과하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힘의 선[즉 권력의 차원] 위에서 장치가 단순하게 다시 닫혀버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푸코 자신이 마치 장치의 지도를 다시 수정해야만 했던 것과 같은 위기, 그리하여 장치에 가능한 새로운 방향을 찾아주어야만 했던 것과 같은 위기”다. 들뢰즈는 푸코에게는 이것이 “항구에 있다고 믿었지만 알고 보니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것”과 같은 위기, 요컨대 “모든 것이 거의

17) 질 들뢰즈, 「장치란 무엇인가?」, 『들뢰즈가 만든 철학사』, 박정태 편역, 이학사, 2007, 472쪽.

18) 들뢰즈, 「장치란 무엇인가?」, 473쪽.

다 해결되었다고 믿을 무렵 사유를 다시 가동시키는” 위기였다고 말한다.<sup>19)</sup>

푸코가 그때까지 다루지 못한, 그래서 자신의 기존 사유를 위기로 몰고 갔던 새로운 차원이란 힘을 다른 힘과의 관계에서 고려하는 것(권력의 차원)과 근본적으로 다른, 힘의 자기 자신과의 관계(윤리)를 고려하는 문제였다. 힘의 선, 즉 권력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은 “힘이 다른 힘과 직선을 형성하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대신에 힘 자신에게 되돌아올 때, 힘이 힘 자신 위에서 실행되거나 또는 힘이 그 자신 스스로를 변형시킬 때 성취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등장하는 주체화의 선은 “우리가 이미 다 완결된 것으로 발견하게 될 결정, 미리 존재하는 결정이 결코 아니다.” 장치 속에서 이루어지는 주체성의 생산으로서의 주체화의 선은 도주의 선이며 그러한 것으로서 이전 선들로부터 벗어날 뿐 아니라(“그 본성상 주체화의 선은 지식과 권력의 차원들로부터 벗어난다”) 언제나 자신으로부터도 벗어난다.<sup>20)</sup>

들뢰즈가 “우리의 다른 것-되기(notre devenir-autre)”라고도 표현하는 장치의 이 마지막 선은 『성의 역사』 1권(*Histoire de la sexualité, tome 1 : La volonté de savoir*, 1976) 이후 푸코가 윤리, 윤리로서의 정치, 자기배려, 자기의 테크놀로지 등으로 정식화했던 바로 그것이다. 앞서 말했듯, 이 시기는 푸코가 통치의 문제계와 더불어 장치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기도 하다. 이 무렵 푸코는 주체가 아닌 그 무엇이 아니라 주체 자신의 연속적인 내재적 변화를 주요한 저항의 경로로 사고했다.

주체화의 선이 저항의 가능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푸코 자신의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78년 이탈리아 공산당원이자 맑스주의자인 트롬바도리(Duccio Trombadori)와 행한 대답에서 푸코는 『말과 사물』 출간 이후 일종의 ‘유행어’가 되어 버린 인간의 죽음이라는 테제에 대해, 그것이 묵시록적인 무언가를 의미한다기보다 끊임없는 주체성의 변화 과정 그 자체를 뜻하는 것으로 의도된 개념이라고 말한다.

스스로의 역사 속에서 인간은 결코 자신들을 구축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지속적으로 그들의 주체성의 수준을 전환하고, 그 자신을 상이한 주체성들의 무한하고 다양한 계열들로서 구성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은 결코 종결되지 않

19) 들뢰즈, 「장치란 무엇인가?」, 474쪽.

20) 들뢰즈, 「장치란 무엇인가?」, 475, 480쪽.

으며, 우리를 ‘인간’이라고 가정되는 그 무엇과 마주치도록 만들지도 않습니다. 인간은 경험의 동물이며, 그는 대상의 영역을 결정하는 동시에, 그 자신을 바꾸고, 해체하고, 변환하고, 주체로서 탈바꿈하는 무한한 과정 속에 놓여있습니다. 약간 예언자처럼 단순하고 혼란스러운 형태로 ‘인간의 죽음’을 말하긴 했지만, 나는 실제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 말하고 싶었습니다.<sup>21)</sup>

주체 자신에 의한 주체의 끊임없는 변형. 푸코는 이러한 “자기에 대한 자기의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면, 정치권력에 대한 저항의 일차적이고 궁극적인 지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sup>22)</sup> 자기에 대한 자기의 관계 혹은 자기에 대한 자기의 실천이 바로 ‘윤리’이므로 푸코에게 정치는 ‘윤리로서의 정치’로 나타난다.<sup>23)</sup> 그리고 이때 윤리는 자유의 실천이다. 자기 자신에 의한 자기 형성과 변화, 자기배려는 자유를 전제한다. “자유는 실천, 사려깊고 신중한 자유의 실천이 아니라면 윤리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 자유는 윤리의 존재론적 조건입니다.”<sup>24)</sup>

그러나 후기 푸코의 이 모든 말들은 그의 이전 작업과 대립하거나 적어도 다른 벡터를 갖지 않는가? 들뢰즈가 ‘위기’를 말한 것은 그 때문이지 않은가? 『성의 역사』 이전 작업들은 권력, 그리고 권력과 본질적으로 얽혀있는 지식의 문제가 초점이지 않은가? 권력과 지식의 그물망에서 주체의 자유를 위한 자리를 찾는 것이 가능한가?

이 같은 의문들에 대해, 푸코는 자신의 관심이 한결같이 주체의 구성과 그 변화 가능성이었음을, 권력과 지식에 대한 작업 역시 그러한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응답한다. 권력을 분석할 때조차 그 목적은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단단히 간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어떻게 그 자신이 되고, 또 어떻게 자신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데 있었다는 것이다.

나는 권력의 현실적 작동 메커니즘을 이해하려고 고심해 왔습니다. 내가 이 작업을 한

21) 미셸 푸코, 『푸코의 탐스』, 이승철 옮김, 갈무리, 2004, 120쪽.

22) 미셸 푸코, 『주체의 해석학』, 심세광 옮김, 동문선, 2007, 283쪽.

23) Michel Foucault, “Politics and Ethics: An Interview”, in *Foucault Reader*, edited by Paul Rabinow, Pantheon, 1984, pp. 373-380.

24) 미셸 푸코, 「자유는 실천으로서 자아에의 배려 : 권력, 자아, 윤리 - 미셸 푸코와의 대담」, 『미셸 푸코의 권력이론』, 정일준 옮김, 새물결, 1994, 104쪽.

이유는, 그 권력관계 속에 위치한 사람들이, 실천과 저항, 반란을 통해 그것들로부터 탈출하고, 그것들을 변환시켜 더 이상 예측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반대로 자신이 속한 권력관계를 인식하고 그것에 저항하여 그것으로부터 탈출하고자 결심한 사람들 자신에 의해 고안되고, 계획될 수 있는 수많은 할 일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내 모든 연구는 절대적 낙관주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사물들이 존재하는 방식이요. 당신이 어떻게 간혀 있는지 보시오’라고 말하기 위해 분석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사물들이 변형될 수 있다고 믿는 한에서만 그것에 대해 말해 왔습니다. 나는 나의 작업이 이러한 목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지요.<sup>25)</sup>

『광기의 역사』에서 『감시와 처벌』로 이어지는 일련의 저작들에 친숙한 이들에게 자신을 절대적 낙관주의자로 소개하는 푸코는 낯설 수밖에 없다. 그러나 들뢰즈는 푸코가 17세기 병원, 18세기 임상의학, 19세기 감옥에 대해서 작성한 ‘고문서’들이 그의 작업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엄격함에 대한 고려로 인해, 모든 것을 뒤섞지 않고자 하는 의지로 인해, 독자에 대한 신뢰로 인해” 나머지 절반을 명시적으로 서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나머지 절반은 푸코가 삶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많은 곳에서 다양한 인물들과 행한 대담의 형식으로 주어져 있으며, 그의 “위대한 책”들 속에서 그려진 선과는 다른 표현 양식을 요구하는 선, 즉 주체화의 선 혹은 윤리의 선이 여기서 나타난다는 것이 들뢰즈 장치론의 결론이다.

들뢰즈의 말대로, 푸코가 말년에 행한 대담들에서 표명한 입장과 관점은 그의 작업 전체의 동기와 성격을 이해하는 나침반이다. 이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를 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저항의 경로는 주체의 자기변형으로서의 윤리의 길이다. 주체를 주체로 생산하는 이질적 요소들의 집합이 장치라면, 문제는 주체가 주체 자신을 저 이질적 요소들 중 하나로, 그것도 집합 전체의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 요소로 삽입시킬 수 있는가다. 푸코가 말하는, 그리고 그를 읽는 들뢰즈가 말하는 윤리로서의 정치는 이 문제를 가리키고 있다.

25) 푸코, 『푸코의 맑스』, 164-5쪽.

#### IV. 결론을 대신하여: 장치론에서 자유와 윤리의 자리<sup>26)</sup>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아감벤과 들뢰즈 모두 장치의 핵심에 주체화—아감벤의 경우는 탈주체화로서의 주체화—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만, 양자는 장치에 내재하는 주체화의 선에 의한 장치 자체의 변형 가능성이라는 결정적 문제에서 갈라진다. 아감벤은 장치의 주체가 장치를 긍정적 방향으로 사용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이런 식의 담론 자체가 장치에 포획된 결과일 뿐이라고 단언한다. 아감벤에게 장치는 통치의 포획기계와 같은 것이며 정치는 오로지 ‘통치될 수 없는 것’을 통해서만 개시될 수 있다. 아감벤에게 문제는 장치에 포획된 것을 해방시키는 세속화 전략이다.<sup>27)</sup>

반면 들뢰즈는 장치를 구성하는 네 개의 선을 다시 지층화의 선·침전의 선과 현실화의 선·창조성의 선으로 구분하고 후자에 의한 장치의 내재적 변형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타진한다. 주체화의 선은 창조성의 선이며, 앞서 보았듯 이 도주의 선, 창조성의 선의 도입은 푸코의 사유가 직면한 위기의 한가운데서 장치에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주기 위해 새로운 차원의 발견으로서 이루어진다. 주체화의 선에 의해 “모든 장치는 장치 자신의 새로움과 창조성의 함유를 따라서 정의”되며, 이를 통해 “스스로 변형을 하는, 또는 이미 미래의 장치를 위하여 스스로 균열되는 그런 장치의 능력”이 규정된다. 우리가 장치 외부에 있지 않음, “장치에 속하며 그것 속에서 행동”함은 분명하지만 이로부터 단순히 해방은 장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는 식의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 우리는 주체화의 선을 가동하여 장치 그 자체를 내재적으로 변형한다. 관건은 장치에 의해 구성될 뿐 아니라 역으로 장치를 구성하는 것으로서의 “우리의 다른 것-되기”다.<sup>28)</sup>

푸코의 말년 작업을 집약하는 ‘우리 자신의 비판적 존재론(une ontologie critique de nous-mêmes)’은 우리를 주체로 만드는 것들에 대한 역사적 탐구라는 점에서 결국 장치론의 다른 이름이다. 우리 자신의 비판적 존재론으로서의 장치론, 우

26) 결론의 논의는 윤영광, 「윤리로서의 정치, 혹은 장치라는 문제」, 『뉴레디컬리뷰』 59, 2014 중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27) “아감벤이 보기엔 해독제로서의 장치를 기대하는 것 또는 장치 속에서 만들어지는 저항적 주체성의 형성 따위는 장치의 논리와 결코 단절하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오히려 장치 자체로부터 물러서는 것이 중요하다.”(양창렬, 「장치학을 위한 서론」, 149쪽)

28) 들뢰즈, 「장치란 무엇인가?」, 480-481쪽.

리를 주체로 만드는 조건 혹은 요소들에 대한 분석은 궁극적으로 “주체성의 새로운 형식들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sup>29)</sup> 문제는 장치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장치에 대한 역사적 비판을 통해 새로운 장치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새로운 장치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 주체성의 새로운 형식을 활성화하는 것, “우리의 다른 것-되기”는 “정의되지 않은 자유의 일”이자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들로서 우리 자신에 대해 수행하는 작업”이다.<sup>30)</sup> 그것은 권력관계에서 결코 소거될 수 없는 전제인 자유를 장치의 내재적 변형의 동인으로 활성화하는 일이다. 주체를 주체로 만드는 이질적 요소들의 집합이 장치라면 자유 역시 장치를 구성한다. 자유는 끊임없이 새로운 주체성의 생산을 개시하는 실천이라는 의미에서 장치이며, 그것도 장치 그 자체의 역사적 변화를 추동하는 장치다. 요컨대 주체는 주체 자신의 장치다. 장치의 문제는 이렇게 윤리의 지평으로 진입한다.

여기서 윤리를 사적 자율의 추구로 독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함은 물론이다. 권력이 주체의 구성이라는 문제로 제기될 때, 다시 말해 전선(戰線)이 주체 내부에 그어질 때 가장 정치적인 것은 주체의 대안적 구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윤리는, 정확히 말해 윤리야말로 정치적이다. 반복컨대, 문제는 윤리로서의 정치다.<sup>31)</sup> 푸코의 이론에서 권력관계-통치성-자기에 대한 자기의 관계가 하나의 연쇄를 이루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러나 윤리로서의 정치 혹은 장치의 내재적 변형에 대한 푸코의 탐구는 미완으로 남았다. 무엇보다, 개인적 윤리와 집합적 정치의 중첩, 자기-변형과 사회 변혁의 연결에 대한 설명이 더 다각화·정교화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연구의 확장 과 심화를 이후의 과제로 남겨둔다.<sup>32)</sup>

29) Michel Foucault, “The Subject and Power,” in Hubert Dreyfus and Paul Rabinow, *Michel Foucault: Beyond Structuralism and Hermeneutic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p. 216.

30) Michel Foucault, “What is Enlightenment?,” in *The Foucault Reader*, edit. Paul Rabinow, New York: Pantheon Books, 1984, pp. 46-47.

31) Foucault, “Politics and Ethics: An Interview”, p. 375. 사토 요시유키 역시 푸코적 의미의 윤리적 실천을 ‘정치적 전략’으로 독해한다. “윤리적 실천은 단순히 ‘사적인 자율의 추구’인 것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저항이라는 빼어난 정치적 전략인 것이다.”(『권력과 저항: 푸코, 들뢰즈, 데리다, 알튀세르』, 김상운 옮김, 난장, 2012, 100쪽)

32) 주체와 윤리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는 후기 푸코에 대한 더 포괄적이고 상세한 논의는 운영광, 『칸트와 푸코: 비판, 계몽, 주체의 재구성』, 북콤마, 2025 II부와 III부 참조.

## 참고문헌

- 미셸 푸코, 1994, 「자유의 실천으로서 자아에의 배려: 권력, 자아, 윤리 미셸 푸코와의 대담」, 『미셸 푸코의 권력이론』, 정일준 옮김, 새물결.
- 미셸 푸코, 2004, 『푸코의 말스』, 이승철 옮김, 갈무리.
- 미셸 푸코, 2006, 『임상의학의 탄생』, 홍성민 옮김, 이매진.
- 미셸 푸코, 2007, 『주체의 해석학』, 심세광 옮김, 동문선.
- 미셸 푸코, 2012, 『말과 사물』, 이규현 옮김, 민음사.
- 미셸 푸코, 2020a, 『감시와 처벌: 감옥의 탄생』, 오생근 옮김, 나남.
- 미셸 푸코, 2020b, 『광기의 역사』, 이규현 옮김, 나남.
- 미셸 푸코, 2020c, 『성의 역사 1: 지식의 의지』, 이규현 옮김, 나남.
- 사토 요시유키, 2012, 『권력과 저항: 푸코, 들뢰즈, 데리다, 알튀세르』, 김상운 옮김, 난장.
-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2014, 『공통체』, 정남영·윤영광 옮김, 사월의책.
- 윤영광, 2014a, 「윤리로서의 정치, 혹은 장치라는 문제」, 『뉴래디컬리뷰』 59.
- 윤영광, 2014b, 「탈정체화의 정치: 랑시에르 정치철학에서 주체(화) 문제」, 『문화과학』 77.
- 윤영광, 2015, 「네그리와 하트의 정치이론에서 자율의 의미와 조건」, 『마르크스주의연구』 12(3).
- 윤영광, 2024, 「포스트휴먼 칸트의 단초: 들뢰즈-푸코의 인간 없는 칸트주의」, 『비평과이론』 62.
- 윤영광, 2025, 『칸트와 푸코: 비판, 계몽, 주체의 재구성』, 북콤마.
- 자크 랑시에르, 2013,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양창렬 옮김, 길.
- 자크 랑시에르, 2015, 『불화: 정치와 철학』, 진태원 옮김, 길.
- 조르조 아감벤, 2010a, 「장치란 무엇인가?」, 『장치란 무엇인가? 장치학을 위한 서론』, 양창렬 쓰고 옮김, 난장.
- 조르조 아감벤, 2010b, 『세속화 예찬: 정치미학을 위한 10개의 노트』, 김상운 옮김, 난장.
- 질 들뢰즈, 2007, 「장치란 무엇인가?」, 『들뢰즈가 만든 철학사』, 박정태 편역, 이학사.
- 질 들뢰즈, 2019, 『푸코』, 허경 옮김, 그린비.
- Agamben, Giorgio, 2000, "Une biopolitique mineure: Entretien avec Giorgio Agamben", VACARME, no. 10.
- Foucault, Michel, 1980, "The Confession of the Flesh",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1972-1977, edited by Colin Gordon, New York: Pantheon Books.
- Foucault, Michel, 1982, "The Subject and Power", Michel Foucault: Beyond Structuralism

and Hermeneutics, Hubert Dreyfus and Paul Rabinow,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Foucault, Michel, 1984a, "Politics and Ethics: An Interview", The Foucault Reader, edited by Paul Rabinow, New York: Pantheon Books.

Foucault, Michel, 1984b, "What is Enlightenment?", The Foucault Reader, edited by Paul Rabinow, New York: Pantheon Books.

■ 국문초록 ■

장치와 저항 :  
아감벤과 들뢰즈-푸코의 장치론 비교

윤영광  
강원대학교 교수

본 논문은 푸코의 장치(dispositif) 개념에 대한 아감벤과 들뢰즈의 상이한 해석을 비교·검토함으로써, 장치에 대한 저항전략의 방향을 타진한다. 아감벤은 현대 자본주의에서 장치들이 주체화가 아닌 탈주체화를 통해 작동한다고 진단하며, 비인칭적 역량과의 관계맺음과 세속화 전략을 통해 '통치될 수 없는 것'에 접근하는 저항의 경로를 모색한다. 반면 들뢰즈는 푸코의 장치 개념을 가시성, 언표행위, 힘, 주체화라는 네 가지 선의 얽힘으로 독해하면서, 특히 주체화의 선이 갖는 창조적·저항적 함의에 주목한다. 본 논문은 장치 외부의 비인칭적 역량과의 관계를 모색하는 아감벤과 달리, 주체의 자기실천을 통한 장치의 내재적 변화 가능성을 사유하는 들뢰즈의 장치론이 후기 푸코의 사유와 정합적 연속성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푸코에게 저항의 일차적이고 궁극적인 지점은 자기에 대한 자기의 관계, 즉 윤리적 실천에 있으며, 이는 주체 자신에 의한 주체와 장치의 변형 가능성을 함축한다. 윤리로서의 정치라는 테제는 장치 밖으로의 이탈이 아니라 장치 자체를 새롭게 하는 주체성의 생산을 저항의 핵심으로 제시한다.

핵심주제어 : 장치, 통치, 주체, 푸코, 아감벤, 들뢰즈

■ Abstract ■

**Dispositif and Resistance:  
A Comparison of Agamben's and Deleuze-Foucault's Theories of  
the Dispositif**

Yoon, Young-Gwang

Kwangwon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and compares Agamben's and Deleuze's divergent interpretations of Foucault's concept of the *dispositif*, exploring possible directions for strategies of resistance. Agamben diagnoses that in contemporary capitalism, *dispositifs* operate through desubjectivation rather than subjectivation, and seeks a path of resistance that approaches "the Ungovernable" through engagement with impersonal capacities and through strategies of profanation. Deleuze, by contrast, interprets Foucault's concept of the *dispositif* as an entanglement of four lines—visibility, enunciation, force, and subjectivation—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 creative and resistant implications of the line of subjectivation. This paper argues that, unlike Agamben, who seeks a relation with impersonal capacities external to *dispositifs*, Deleuze's theory of the *dispositif*—which conceives the possibility of immanent transformation of *dispositifs* through the subject's practices of the self—maintains coherent continuity with later Foucault's thought. For Foucault, the primary and ultimate point of resistance lies in the relation of self to self, that is, in ethical practice, implying the possibility that the subject itself can transform both itself and the *dispositif*. The thesis of poli-

tics as ethics posits as the core of resistance not an escape outside the *dispositif*, but the production of subjectivity that renews the *dispositif* itself.

Key-words : dispositif, government, subject, Foucault, Agamben, Deleuze